

사회

# 80년 이후 5·18 피해자 42명 자살

## 정신과 치료·알코올 중독·가족 해체 등 고통 시달려

1980년 5·18 당시 부상을 입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 중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대 26명에 달했던 5·18 관련 자살자는 1990년대 4명으로 줄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12명으로 늘었다.

9일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이 5·18 3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18 부상자와 유족들은 5·18이 불러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기질적 뇌손상,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2명의 평균 연령은 47살로, 대부분 가장들이어서 해당 가족의 해체와 경제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살 피해자는 1990년대에 잠시 줄었지만 2004년 한 해에만 7명이 자살하는 등 2000년대에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유족회 등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자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수만 5·18 유족회장은 "5·18 관련자 중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치유 프로그램과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또 5·18 부상자와 유족의 절반 가까이가 5·18 트라우마에 시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5·18 부상자와 가족들 중 41.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5%는 중증 증세를 보였다.

또 부상자의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 음주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5·18 단체들의 분석이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맞아 중상을 입은 박모(47)씨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세상에 분풀이를 하고 산다"며 "당연히 가계는 공황해지고 가족들에게 가장 못되고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대낮 공무원에 칼부림 징역 4년

## 광주지법 "공무원 상해는 법치주의 위협"

대낮에 시침을 찾아가 공무원을 흉기로 찔른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9일 시청 민원 업무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에게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 및 사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 내에서 해야 한다"며 "박씨의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난 1월17일 오후 1시25분께 광주 시청 10층 도시재생과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 공무원 오모(45)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광주시 광산구 토지가 수용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안 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563) 김종두



# 노래방 등 일제점검 광주시 소방본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광주지역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 노래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광주지역 노래연습장 1371곳, 유흥·단란주점 1134곳, 비디오 감상실 51곳, 나이트클럽 12곳을 방문해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노래방서 성추행 당했다" 사장 고소

○'20대 여성이 일흔이 넘는 회사 사장에게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착수.

○'9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김모(여·27)씨는 "회사 사장 김모(71)씨가 지난 2월14~15일 사이 영광군 흥농을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민감한 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며 "노래방 업주 등을 불러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이제는 씻어야 할 5·18 트라우마 5·18 민중항쟁 32주년

# 내달 도시공사서 운영 시작 내년 5·18교육관 인근 건립

## <4> 광주 트라우마센터 어디까지 왔나

9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한 개인병원, 환자 여럿이 병실에 모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 동지라 부르며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5·18 이야기를 꺼내자 긴장감이 흐른다. 악몽 같았던 시절을 떠올릴 때면 눈물이 터져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 몸과 마음에 난 5·18의 생채기 때문이다.

1980년 당시 광주YWCA 이사로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했다 구속돼 군인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던 송희성(여·75·전 전남도의원)씨는 "3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악몽을 여전히 몸과 마음에 품고 사는 이들이 많다"며 "신체적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되었다고 하지만 후유증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잠시나마 병원에 입원하

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 만에 두세 번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의 형편은 조금 나은 편이다.

5·18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은 32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 5·18 관련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변변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시달린 유공자 133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71명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0주 동안 5·18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은 광주에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평화박물관은 지난 3월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상근 인력과 한 해 예산을 기준으로

로 기본형(25명에 15억원), 확대형(40명에 21억원), 축소형(12명에 8억원) 등 3개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치유대상, 규모, 운영방식 등 몇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센터는 오는 6월 중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건물에 개소할 예정이다. 치유팀과 재활복지팀, 기획연구팀을 갖추고 센터장을 포함한 10명의 상근 인력으로 운영된다. 또 내년에는 상무지구 5·18교육관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 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안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늦은감이 있지만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트라우마 치유 국제교류센터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GET JOB 취업·창업 박람회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GET JOB 취업·창업 박람회'가 9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안병하 전 도경국장 자녀

# 보상금 반환 안해도 된다

광주고법 제1형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최근 열린 5·18 보상금 반환 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에 반대하다 해임된 후 계엄사의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의 유족 전모(7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전씨의 아들 3명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한다"고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는 전씨에 대해서는 이종으로 보상을 받은 부분을 인정하되 이미 상당한 자녀는 보상을 받지 못한 만큼 5·18 보상금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 엑스포장 인근 해상 기름띠

## 여수해경 긴급 방제

여수엑스포 개최지에서 7km 떨어진 여수시 신덕동 앞 해상에서 기름띠가 발견돼 해경이 긴급방제했다.

여수해경은 9일 "이날 오전 7시30분께 여수시 신덕동 소치마을 앞 해상에서 기름띠가 길이 500m 폭 50m가량 형성되어 있다는 화물선 도선사의 신고를 받고 긴급방제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형철기자 chkim@

여수해경은 기름띠 제거를 위해 방제정 2척, 경비함정 3척 등 해양오염 방제팀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 4척, 민간 방제선 2척을 현장에 급파해 6시간 동안 해상에 떠있는 기름 약 100t을 기름흡착포 등으로 제거했다.

석유비축기지 가 있는 여수 신덕동 해안가는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는 신항과는 거리가 불과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하루 20~30척의 상선이 오가는 주요 항로다. /동부취재본부=김형철기자 chkim@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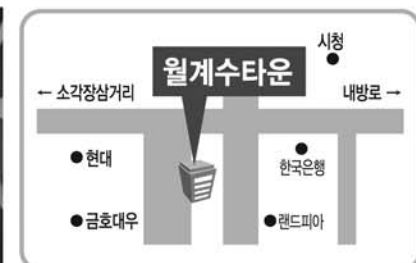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실내골프연습장

#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 연습장 이용시간

|         |               |
|---------|---------------|
| 평일      | 06:00 ~ 23:00 |
| 토요일     | 10:00 ~ 22:00 |
| 일요일·공휴일 | 12:00 ~ 20:00 |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